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성격선호지표와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관계

임순연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 of personality prefer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test anxiety in selecting dental hygiene students

Soon-Ryun L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Namseoul University, Chonan-City, 331-707,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rrelation of personality prefer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test anxiety in selecting college students who majored in dental hygiene. This study also provides a basic data regarding personality for educ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192 students of S college who majored in dental hygiene were asked to answer the MBTI GS form, academic self-efficacy scal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cale and test anxiety scale during the month of May, 2009. The total of 160 copies were analyzed. MANOVA, independent-sample t-test were conducted.

Results : 1. Looking at distribution of personality preference type of the students, extroversion type (63.1%) was more than introversion type(36.9%), sensing type(87.5%) was more than intuition type(12.5%), thinking type(54.4%) was more than feeling type(45.6%), judging type(59.4%) was more than perceiving type (40.6%) 2. In subscal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erformance approach level was higher in extroversion type than in introversion type. Performance avoidance level was lower in extroversion type than in introversion type. However, other preference personality type didn'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scal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3. Academic self-efficacy was higher in extroversion type and thinking type than in introversion type and feeling type.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judging type and perceiving type, sensing type and intuition type. 4. In subscale of academic self-efficacy, confidence was higher in extroversion type than in introversion type.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self-regulated efficacy were higher in thinking type than in feeling type. 5.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ersonality preference type and test anxiety.

Conclusions : Professor should find out difference between students through using information of preference personality and develop a teaching strategy that can encourage strength and make up weakness of each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dental hygiene students, MBTI, personality preference, test anxiety.

색인 : 성격선호지표, 성취목표, 시험불안, 치위생과 학생,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락처: 임순연 우) 331-70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21번지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연구실 : 041-580-2560 휴대폰 : 010-5213-5540 E-mail : dittochun4@hanmail.net

※ 이 논문은 2009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2010년 10월 28일 수정일-2010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2010년 12월 18일

1. 서론

성격은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반영하면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제이며 더불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은 일관성 있는 행동특성들의 독특한 조합으로 개인의 성격유형을 알아봄으로서 개인의 행동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¹⁾.

스위스의 심리학자 C. G. Jung은 인간내면에 각기 다른 속성에 따른 인간 행동 속에 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 내부에서는 일정한 일관성과 질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인 태도의 측면에서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로 분리하고 흥미의 방향에 따라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기능유형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들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격유형검사(MBTI)는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이라는 4개의 양극지표를 만들어낸다²⁾. 성격유형검사(MBTI)는 개인면담 등에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심리 도구로 학생들의 교우관계, 가치관, 학교 적응 등의 문제에서 이전보다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³⁾. 이런 관점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들을 지식과 기술이 풍부할 뿐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격을 갖추고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치위생사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성격과 관련된 연구는 치위생사를 교육하는데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교육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학습동기이다. 인간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교육의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교생활 뿐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의도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⁴⁾. 학습동기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학업적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성취목표지향성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교육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⁵⁾. 성취목표이론은 특별히 학업과제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으로⁶⁾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태도 및 수행이 달라지므로 성취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매개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취목표 이론가들은 성취목표를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숙달목표, 타인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을 보여주려는 수행목표로 구분하고 있다⁷⁾.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다른 동기적 변인 및 인지적 변인과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수행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⁹⁾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은 막대한 양의 학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 기말고사의 점수는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학생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시험불안이란 불안의 한 형태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모두 포함한다¹⁰⁾. 따라서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은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이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위생과 학생의 성격유형을 조사하거나 성격유형에 따른 임상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논문은 있으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격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격유형과 성격선호지표를 조사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직업을 위한 성격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선행연구들

에 비추어 보면 치위생과 학생들의 특정한 성격유형 및 성격선호지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과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격유형만으로 학생의 사고와 행동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성격유형을 아는 것은 행동을 예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도자가 학생 개개인의 성격유형을 알 수 있다면 같은 학습방법 아래서 학생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예상 할 수 있으며 학생지도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S시에 있는 S대학의 치위생과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성격유형검사는 3월 초에 검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시험불안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모두 192명이며 작성이 미비한 설문지를 포함하여 불충분한 응답자 32부를 제외하고 16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도구

2.1.1.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성취목표지향성이란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성과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 정의되며 개인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과 이¹²⁾에 의하여 타당화된 척도를 성¹³⁾이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의 4가지 요인에 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실히 아니다(1점)’ ‘상당히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상당히 그렇다(5점)’ ‘확실히 그렇다(6점)’ 의 6단계 Likert 식으로 되어 있다. 각 구성요인의 신뢰도 수준은 다음과 같다. 숙

달접근은 Cronbach $\alpha = .80$, 숙달회피는 Cronbach $\alpha = .67$, 수행접근은 Cronbach $\alpha = .87$, 수행회피는 Cronbach $\alpha = .78$ 이다.

2.1.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학습능력에 관하여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는 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김과 박¹⁴⁾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수준 선호 10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의 6단계 Likert 식 척도이다. 각 항목에 관한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과제수준선호는 Cronbach $\alpha = .84$, 자기조절효능감은 Cronbach $\alpha = .82$, 자신감은 Cronbach $\alpha = .79$ 이고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다.

2.1.3. 시험불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불안 척도는 Spielberg등의 Test Anxiety Inventory를 번역하여 고¹⁵⁾가 사용한 척도이다. 이 검사는 시험불안의 인지적 걱정을 측정하는 8문항과 정서성을 측정하는 8문항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불안을 알아보는 4문항, 전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95이다.

2.1.4 성격선호지표

MBTI (Me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 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K. C. Briggs와 I. B. Meyers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서식 성격유형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김 등²⁾에 의해 표준화된 MBTI form중에서 자가 채점용 GS 형을 사용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격유형의 빈도 및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격유형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증,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판단형(59.4%)이 인식형(40.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성적

3.1.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격유형의 전반적인 경향

연구에 참여한 치위생과 신입생의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1>과 같다.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격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내향형(36.9%)보다 외향형(63.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관형(12.5%)보다 감각형(87.5%)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형(45.6%)보다는 사고형(54.4%)이

3.2.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전반적인 경향

연구에 참여한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수행회피(3.35 ± .73)가 나머지 성취목표지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3.12 ± .44)이 나머지 하위요인 중 가장 낮았으며, 자기조절효능감(3.43 ± .68)이 가장 높았다. 시험불안은 2.70 ± .81로 중간정도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격유형의 분포

성격	구분	빈도(n=160)	백분율(%)
내향형(I)/외향형(E)	내향형(I)	59	36.9
	외향형(E)	101	63.1
감각형(S)/직관형(N)	감각형(S)	140	87.5
	직관형(N)	20	12.5
사고형(T)/감정형(F)	사고형(T)	87	54.4
	감정형(F)	73	45.6
판단형(J)/인식형(P)	판단형(J)	95	59.4
	인식형(P)	65	40.6

표 2.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성취목표지향성		
숙달접근	3.76	.58
숙달회피	3.61	.55
수행접근	3.60	.75
수행회피	3.35	.73
학업적 자기효능감	3.12	.44
과제수준선호	3.27	.54
자기조절효능감	3.43	.68
자신감	3.12	.44
시험불안	2.70	.81

3.3 치위생과 신입생의 성격유형과 주요변인과의 관계

3.3.1. 성격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

성격유형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숙달접

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를 종속변수로, 성격선호지표인 외향-내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성취목표지향성의 반복측정 다변량 분산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숙달접근	내향형	3.72	.59	.440	1, 158	.508																																																																																																																																																																														
	외향형	3.79	.58				숙달회피	내향형	3.63	.57	.261	1, 158	.610	외향형	3.59	.53	수행접근	내향형	3.37	.75	8.870	1, 158	.003**	외향형	3.73	.73	수행회피	내향형	3.50	.75	4.023	1, 158	.047*	외향형	3.26	.70	Wilks' $\lambda = .891, F(4,155) = 4.718, p = .001, \eta^2 = .11$							숙달접근	감각형	3.78	.58	.725	1, 158	.396	직관형	3.66	.62	숙달회피	감각형	3.63	.56	2.514	1, 158	.115	직관형	3.43	.43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숙달회피	내향형	3.63	.57	.261	1, 158	.610																																																																																																																																																																														
	외향형	3.59	.53				수행접근	내향형	3.37	.75	8.870	1, 158	.003**	외향형	3.73	.73	수행회피	내향형	3.50	.75	4.023	1, 158	.047*	외향형	3.26	.70	Wilks' $\lambda = .891, F(4,155) = 4.718, p = .001, \eta^2 = .11$							숙달접근	감각형	3.78	.58	.725	1, 158	.396	직관형	3.66	.62	숙달회피	감각형	3.63	.56	2.514	1, 158	.115	직관형	3.43	.43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접근	내향형	3.37	.75	8.870	1, 158	.003**																																																																																																																																																																														
	외향형	3.73	.73				수행회피	내향형	3.50	.75	4.023	1, 158	.047*	외향형	3.26	.70	Wilks' $\lambda = .891, F(4,155) = 4.718, p = .001, \eta^2 = .11$							숙달접근	감각형	3.78	.58	.725	1, 158	.396	직관형	3.66	.62	숙달회피	감각형	3.63	.56	2.514	1, 158	.115	직관형	3.43	.43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회피	내향형	3.50	.75	4.023	1, 158	.047*																																																																																																																																																																														
	외향형	3.26	.70				Wilks' $\lambda = .891, F(4,155) = 4.718, p = .001, \eta^2 = .11$							숙달접근	감각형	3.78	.58	.725	1, 158	.396	직관형	3.66	.62	숙달회피	감각형	3.63	.56	2.514	1, 158	.115	직관형	3.43	.43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Wilks' $\lambda = .891, F(4,155) = 4.718, p = .001, \eta^2 = .11$																																																																																																																																																																																				
숙달접근	감각형	3.78	.58	.725	1, 158	.396																																																																																																																																																																														
	직관형	3.66	.62				숙달회피	감각형	3.63	.56	2.514	1, 158	.115	직관형	3.43	.43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숙달회피	감각형	3.63	.56	2.514	1, 158	.115																																																																																																																																																																														
	직관형	3.43	.43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접근	감각형	3.60	.75	.001	1, 158	.972																																																																																																																																																																														
	직관형	3.60	.7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회피	감각형	3.36	.73	.362	1, 158	.548																																																																																																																																																																														
	직관형	3.26	.74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Wilks' $\lambda = .974, F(4,155) = 1.035, p = .391, \eta^2 = .03$																																																																																																																																																																																				
숙달접근	사고형	3.89	.57	9.034	1, 158	.003																																																																																																																																																																														
	감정형	3.62	.57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숙달회피	사고형	3.59	.58	.174	1, 158	.678																																																																																																																																																																														
	감정형	3.62	.50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접근	사고형	3.65	.79	.880	1, 158	.350																																																																																																																																																																														
	감정형	3.54	.71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회피	사고형	3.31	.79	.419	1, 158	.518																																																																																																																																																																														
	감정형	3.39	.65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Wilks' $\lambda = .943, F(4,155) = 2.342, p = .057, \eta^2 = .06$																																																																																																																																																																																				
숙달접근	판단형	3.85	.54	5.611	1, 158	.019																																																																																																																																																																														
	인식형	3.63	.62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숙달회피	판단형	3.65	.53	1.957	1, 158	.164																																																																																																																																																																														
	인식형	3.53	.5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접근	판단형	3.63	.74	.318	1, 158	.573																																																																																																																																																																														
	인식형	3.56	.77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수행회피	판단형	3.35	.70	.020	1, 158	.887																																																																																																																																																																														
	인식형	3.34	.77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Wilks' $\lambda = .943, F(4,155) = 2.364, p = .055, \eta^2 = .06$																																																																																																																																																																																				

* p<0.05 ** p<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하위변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외향-내향형의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만 Wilks' λ (람다) 값이 .89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155)= 4.718, p < 0.01$). 성취목표지향성 하위변인들 중 수행접근($F(1,158)= 8.870, p < 0.01$)과 수행회피($F(1,158)= 4.023, p < 0.05$)가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수행접근 수준이 높았고, 수행회피 수준이 낮았다. 반면,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 선호지표는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3.2.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를 종속변수로, 성격 선호지표인 외향-내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 선호,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은 성격 선호지표들 각각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격 선호지표 중 외향-내향형($t = -3.039, p < 0.01$), 사고-감정형($t = 3.327, p < 0.01$)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외향형, 사고형이 내

향형, 감정형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수준이 높았다. 반면, 감각-직관형, 판단-인식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우선 외향-내향형의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가 Wilks' λ (람다) 값이 .01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56)= 4.952, p < 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 중 자신감($F(1,158)= 14.329, p < 0.001$)이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자신감 수준이 높았다. 나머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수준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은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감정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도 Wilks' λ (람다) 값이 .931로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의 다변량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156)= 3.866, p < 0.05$).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들 중 과제수준선호($F(1,158)= 9.111, p < 0.01$)과 자기조절효능감($F(1,158)= 5.675, p < 0.05$)이 사고-감정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고형이 감정형에 비해 과제수준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머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은 사고-감정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성격 선호지표인 감각-직관형, 판단-인식형은 학

표 4. 성격유형에 따른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독립표본 t검증 결과

구분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내향형(I)	59	3.00	.35	-3.039	.003**
	외향형(E)	101	3.19	.47		
	감각형(S)	140	3.13	.45	.271	.787
	직관형(N)	20	3.10	.36		
	사고형(T)	87	3.22	.47	3.327	.001**
	감정형(F)	73	3.00	.37		
	판단형(J)	95	3.16	.45	1.431	.154
	인식형(P)	65	3.06	.42		

** p<0.01

표 5.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과제수준선호	내향형	2.68	.44	.725	1, 158	.396
	외향형	2.76	.63			
자기조절효능감	내향형	3.17	.46	3.046	1, 158	.083
	외향형	3.33	.58			
자신감	내향형	3.17	.71	14.329	1, 158	.000***
	외향형	3.58	.62			
Wilks' $\lambda = .913, F(3,156) = 4.952, p = .003, \eta^2 = .09$						
과제수준선호	감각형	2.73	.58	.010	1, 158	.921
	직관형	2.74	.48			
자기조절효능감	감각형	3.28	.56	.124	1, 158	.725
	직관형	3.23	.39			
자신감	감각형	3.43	.67	.135	1, 158	.714
	직관형	3.38	.78			
Wilks' $\lambda = .998, F(3,156) = .095, p = .963, \eta^2 = .00$						
과제수준선호	사고형	2.85	.62	9.111	1, 158	.003**
	감정형	2.58	.46			
자기조절효능감	사고형	3.36	.56	5.675	1, 158	.018*
	감정형	3.16	.50			
자신감	사고형	3.51	.64	3.060	1, 158	.082
	감정형	3.33	.71			
Wilks' $\lambda = .931, F(3,156) = 3.866, p = .011, \eta^2 = .07$						
과제수준선호	판단형	2.75	.55	.510	1, 158	.476
	인식형	2.69	.60			
자기조절효능감	판단형	3.34	.54	4.489	1, 158	.036
	인식형	3.16	.52			
자신감	판단형	3.44	.71	.152	1, 158	.697
	인식형	3.40	.63			
Wilks' $\lambda = .972, F(3,156) = 1.514, p = .213, \eta^2 = .03$						

*p<0.05 ** p<0.01 *** p<0.001

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3.3 성격유형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

성격유형에 따라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시험불안은 전체 시험불안 점수를 종속변수로, 성격 선호지표인 외향-내향형, 감각-직관

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격 선호지표인 외향-내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 각각에 따른 전반적인 시험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성격유형에 따른 전체 시험불안의 차이 독립표본 t검증 결과

구분	집단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시험불안	내향형(I)	59	2.75	.84	.612	.542
	외향형(E)	101	2.67	.79		
	감각형(S)	140	2.74	.78	1.512	.132
	직관형(N)	20	2.45	1.00		
	사고형(T)	87	2.71	.82	.092	.927
	감정형(F)	73	2.69	.81		
	판단형(J)	95	2.74	.79	.668	.505
	인식형(P)	65	2.65	.85		

4.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다양한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내향형(36.9%)보다 외향형(63.1%)이, 직관형(12.5%)보다 감각형(87.5%)이, 감정형(45.6%)보다는 사고형(54.4%)이, 판단형(59.4%)이 인식형(40.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대부분을 주체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여 인식, 지각하며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분석한 한과 원¹⁶⁾의 결과, 간호대생의 성격유형을 조사한 정 등¹⁷⁾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고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⁵⁾의 연구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김 등¹⁸⁾의 연구,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²⁾와 비교하면 외향형이 우세한 것 외에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 등²⁾의 연구와 치위생과 학생들을 비교하면 일반대학생 집단의 경우 내향성(50.88%), 감각형(71.79%), 사고형(59.70%), 판단형(59.45%)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은 외향성과 감각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등²⁾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

학생집단의 특성과 유사하여 여자로만 구성된 본 연구 집단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외향성은 에너지가 주위의 외부세계로 향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좋아하며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접하는 정보를 처리하며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 외향형의 경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외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고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감각형은 자신의 감각기능을 사용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⁵⁾. 외향적인 학생들이 치의학교육프로그램의 임상적 요소에서, 내향적 학생들은 학구적인 요소에서 덜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¹⁹⁾를 고려하면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특히 임상에 관련된 실기에 더 흥미를 느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외향형과 감각형의 학습자들은 이론을 배우기 전에 이들과 관련된 친숙한 사례나 문제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학습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학습한 내용이나 경험을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⁸⁾.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하위변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수행접근 수준이 높았고, 수행회피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 선호지표는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취목표지향이란 학습자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의도 또는 성취상황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하고 접근하고 관여하는 것과 관련된 통합된 형태의 신념으로²⁰⁾ 이러한 목표지향은 인지적 참여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학습태도와 학

업성취에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다²¹⁾. 학습자가 과제에 대하여 어떤 성취목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과제와 관련된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학업성적도 달라지며 수행 목표를 향하는 학습자는 점진, 조직화, 조절 전략과 같은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²²⁾. 소²³⁾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예측에서 수행접근 목표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고²⁴⁾는 수행접근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수행 회피목표는 학업성취와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 등을 변화시키며 이런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¹³⁾ 성격유형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과 도전감을 가질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여 수행접근을 높일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 특히 내향형의 학생들은 성취동기를 유발시켜 효과적인 학습과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격선호지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과 하위요인 중 자신감 수준이 높았다. 사고형은 감정형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고 하위요인 중 과제수준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채⁵⁾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유사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이란 학문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이나 신념이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므로 전반적인 효능감과 자신감의 하위요인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²⁵⁾.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행동에 대한 의도적인 집중력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진전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능력이며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⁴⁾.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여 논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사고형이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맞는 과제를 찾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내적동기를 유발시키고 효율적인 과제수행을 가능하게하며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25,26)}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향형은 활발하고 사고성이 많으나 반면에 내향형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으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므로 내향형이 외향형에 비해 불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성격선호지표와 시험불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⁵⁾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초등학생의 경우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불안수준이 낮다는 조²⁷⁾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많은 시험을 통하여 시험에서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전략을 구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양²⁸⁾의 결과에 따르면 시험불안에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비합리적 사고, 자존감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불안과 관련된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격선호지표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시험불안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MBTI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학업과 관계되는 것들 뿐 아니라 환자와의 의사소통,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 소속된 집단의 협동이 필요한 활동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을 개선시키며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내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차를 알아내고 개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교수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일부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시험불안은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성격유형과 관련되어 각각의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방법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와 학업적효능감, 시험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9년 5월 S대학의 치위생과 1학년 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용된 측정도구는 MBTI 성격유형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성취목표지향성 검사, 시험불안 검사이다.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증,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성격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은 내향형(36.9%)보다 외향형(63.1%)이, 직관형(12.5%)보다 감각형(87.5%)이 많았고 감정형(45.6%)보다는 사고형(54.4%)이, 판단형(59.4%)이 인식형(40.6%)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하위변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수행 접근 수준이 높았고($F(1,158)= 8.870, p<0.01$), 수행회피 수준이 낮았다. ($F(1,158)= 4.023, p<0.05$) 외향-내향형 성격 선호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 선호지표는 성취목표지향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외향형, 사고형이 내향형, 감정형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다($p<0.01$). 반면, 감각-직관형, 판단-인식형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전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성격 선호지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의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자신감 수준이 높았으며($p<0.001$). 사고형이 감정형에 비해 과제수준성호($p<0.01$)와 자기조절효능감 수준($p<0.0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 성격 선호지표인 외향-내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 각각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차를 알아내고 개개인의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교수 학습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노안영, 강영신. 성격심리학. 1판. 서울: 학지사; 2005:18-21.
2.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MBTI개발과 활용.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3. 김관수, 박현주. 2008학년도 신입생 성격유형검사(MBTI). 부산대 학생생활연구 2008;28:34-44.
4. Woolfolk, A. E. Educational Psychology 4th Ed. New York: Prentice-Hall; 1990.
5. 채민성. 성격선호지표, 학업적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6. 한순미. 중다목표관점에서의 성취목표와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03;17(3):291-312.
7. Ames, C. Classrooms: goal,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92;84:261-271.
8. Bandura, A., & Schunk, D. H.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1;41:586-598.
9.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Development of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86;23:614-628.
10. Spielberger, C. D.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1972:23-49.
11. 정경연. C-MBTI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의 지능 및 학업성취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12. 박명기, 이종욱. 2X2 성취목표지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005;42(4):455-476.
13. 성소연. 2X2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대

- 대학원; 2007.
14. 김아영, 박인영. 학업적 자기효능감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교육학 연구* 2001;39(1):95-123.
 15. 고희영. 교사기대지각, 학문자아개념, 시험불안과 학업성취간의 분석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92.
 16. 한혜숙, 원영순.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격유형 결과. *한국위생과학회지* 2007;13(1):25-30.
 17. 정현경, 김명수, 유연자, 김수옥, 원대영. 간호대학생의 MBTI성격유형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성. *간호행정학회지* 2007;13(4):516-525.
 18. 김선, 김주현, 허애라. 의과대학생 성격과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한 교육방법. *한국의학교육* 2005;17(2):107-119.
 19. Jones, A. C., Courts, F. J., Sandow, P. L., & Warson, R. E.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dental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Dental Education* 1997;61:928-933.
 20. Ames, C. Classrooms: goal,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structures, and psychology* 1992;84:261-271.
 21. Deci, E. L., Ryan, R. M.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 Human needs and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2000;11(4):227-268.
 22. 최병연.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교육문제연구* 1998;10:227-253.
 23. 소연희. 의과대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2008; 20(1):37-49.
 24. 고유림. 성취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석사학위논문]. 전주: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8.
 25. 이석영.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결성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2009.
 26. 정정애.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강릉: 관동대학교 대학원; 2009.
 27. 조말숙. 초등학생의 성격유형(MMTIC)에 따른 발표불안 및 시험불안[석사학위논문]. 부산: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8.
 28. 양선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및 자아존중감과 시험불안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성남: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